



2009년 인쇄계 10대 NEWS

1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 · · 조정석 사장 문화포장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공동 주최로 2009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전용진 한국잡지협회 회장, 이기웅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한철희 출판인회의 회장, 허철중·민재기 인협 명예회장 등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이사가 문화포장을, 노웅선 (주)웅선비즈니스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이우열 명성칼라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 등 16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박제덕 (주)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 최은철 현대씨앤피 (주) 대표이사, 오성상 신구대학 교수, 임인호 씨가 인쇄문화대상을 받았으며 정홍택 출판도시 공방장이 직지상을 수상했다.

2 금융위기·환율변동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에 이어 해가 바뀐 2009년에도 외환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했다. 달러화 및 엔화, 유로화 등의 주요 통화들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최소 30%~100%에 가깝게 급격한 하락을 기록했다.

인쇄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도 요동치는 환율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인쇄기계의 경우 달러화, 엔화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인쇄기계의 수입, 판매사들의 부담은 특히 컸다. 일부 업체들은 판매 수익의 악화 수준이 아니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역마진' 현상까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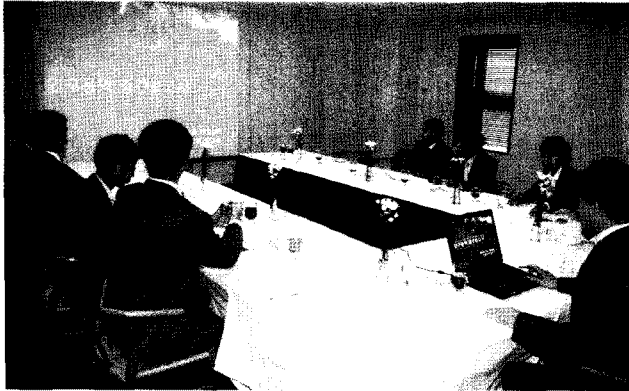
관련 소모품을 판매 및 구입하는 업체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판매업체에서 판매가격 일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는 했지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설비의 교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운용비용의 증가로 가뜩이나 악화된 인쇄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계다가 전반적인 경기의 후퇴로 인해 인쇄물 수요의 감소로 인쇄사에서는 가격인상을 취할 수도 없고 구매 단가를 절감할 수도 없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다.



3

세계강국 진입을 위한 인쇄진흥 방안 마련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국고 지원을 받아 세계강국 진입을 위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했다. 오성상 신구대학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이재수 일진피엠에스 부사장, 김성수 인쇄공학박사, 조가람 부경대 교수, 유창준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 장성문 두산동아 수출부장, 윤재호 나루코 대표, 황일하 대한인쇄연구소 부장 등 7명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킨 가운데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세계 인쇄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7대 정책과제와 28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년간 5836억원(국고 3천51억원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7대 정책과제는 생산력 강화, 경쟁력 강화, 인쇄물 품질향상, 인쇄시설 인프라 확충, 인쇄전문 인력 양성, 인쇄신기술 개발 및 블루오션 창출, 그린산업 육성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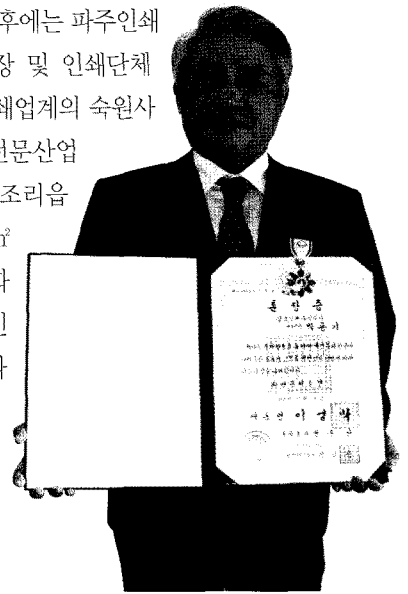
4

박용기 삼조인쇄 대표이사 문화훈장 수훈

삼조인쇄(주) 박용기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된 2009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추천으로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이길원 태평양그랜드 사장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지난 1974년 삼화인쇄에 입사하면서 인쇄업계에 입문한 박용기 사장은 40여년 가까이 인쇄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쇄기술 개발, 인쇄물 품질향상, 인쇄업계 공동발전, 인쇄인의 위상 제고 등 우리나라 인쇄문화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지난 1999년 이후에는 파주인쇄공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인쇄단체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인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규모 인쇄전문산업 단지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변에 20만3천㎡ 규모로 조성하여 협동화 집적화 현대화를 통한 인쇄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5

제 1회 친환경인쇄 국제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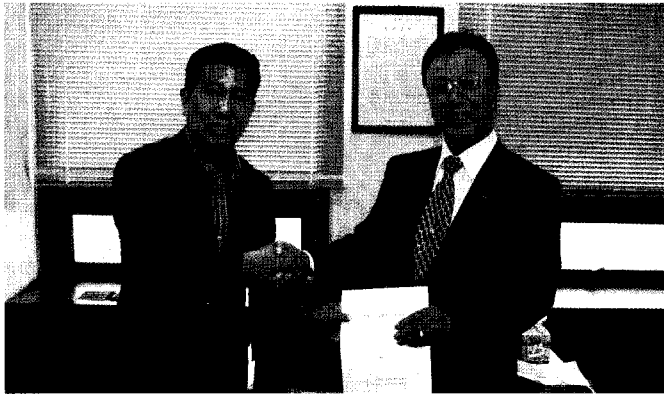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 소재 PJ호텔 카라디움 홀에서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00여 명의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인쇄기술의 현황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조 강연에는 홍우동 회장(대한인쇄문화협회)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인쇄'에 대해 ▲아힘 쇼업 박사(독일에너지환경연구소 연구원)가 '유럽의 친환경인쇄 기술동향과 전망'에 대해 ▲기노시타 도시히로 매니저(뚝판인쇄(주) 품질환경센터)가 '일본의 친환경인쇄 기술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학래 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가 '인쇄용지 분야의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원재 소장(주동양인크 기술연구소)이 '인쇄잉크 분야의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김명성 상무이사(주한진피앤씨)가 '우리나라 인쇄업체의 친환경인쇄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김종규 소장(GMP인쇄연구소)이 '인쇄후가공 분야의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6

대한인쇄문화협회 인쇄공용 서체 개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국고 지원을 받아 산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인쇄공용서체를 개발한다. 이번에 개발되는 서체는 1서체 3종으로 한글 7050자(중간, 가는, 굵은체 포함)와 약물 2950자 등 총 1만 8자이다. 또한 개발된 인쇄공용서체는 2010년부터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고지원으로 추진된 '인쇄공용서체 개발'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산돌커뮤니케이션과 Y사 J사 D사 등 4개사의 프리젠테이션과 서류 심사를 통해 산돌커뮤니케이션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홍우동 회장은 "이번에 개발되는 서체는 교과서에서도 사용되는 국민서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 장경태) ▲ 금상에 독일성경(청야문화사 김남수) 문화재보호재단 인천공항전시도록(㈜이에피 이영호) AK 플라자 백화점 상품권(㈜광인사 김광춘) ▲ 은상에 브리태니커비주얼사이언스백과(세계문화(주) 송춘식) 비전 서울2010(베스트그래픽스 이선노) 전사레이블(주)삼원프린테크 박제덕) ▲ 동상에 다뉴세문경(주)피알앤박스 정장호) 삼성에버랜드 '설' 브로슈어(금강프린텍 이광재) 안삼공사 올간(은성정밀인쇄(주) 김국) ▲ 입선에 편해문 사진집 '소꿉' (서진문화인쇄사 이규복) 외 22점이 수상했다.

7

제 4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인쇄센터와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한 제4회 인쇄문화축제가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인쇄가 펼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열렸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제4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인쇄축제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후원한 고인쇄체험을 비롯, 디지털인쇄를 체험하는 현대인쇄관, 70~80년대에 널리 쓰였던 등사기를 체험하는 부스와 인쇄의 기본 색인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의 페인트 건을 종이에 쓰아 인쇄의 원리를 체험하는 '인쇄를 쓰다' 등으로 구성됐다.

제4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은 인쇄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인쇄대상시상식, 인쇄유공자 표창 수여, 김미화씨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전시장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인쇄대상 수상작은 ▲ 대상에 LG전자 브로슈어(주)유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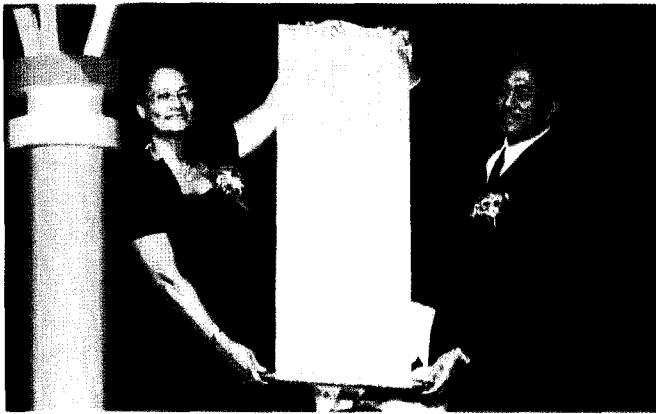
8

2009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2009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이 지난 9월 4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남상우 청주시장, 이승훈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박병선 박사, 유네스코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직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원장 시데크 자밀)은 1982년 11월 아시아에서 기록문화에 대한 제1회 국제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유네스코와 기록국제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아시아 기록기침서' 발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시상 역시 아시아 지역의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8년 제16회 국제기록지문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여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등록해 기록문화계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3만9천여 개의 대중의 기록을 디지털화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필름 저장물, 437편에 이르는 민간기록물 등은 전 세계 연구자들의 논문, 서적, 역사편찬 활동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유네스코 직지상은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인류 공동의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2005년부터 격년제로 시상하는 상이다.

블루오션 창출 및 수출진흥, 민족의 우수성과 한글을 빛낼 국민서체의 개발, 국제교류 및 발간사업 확대, 품질인증사업 및 Green Print 인증제도, 미래 인쇄를 대비하는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인쇄기자재전시회 주관 및 참여확대, 정부포상 및 인쇄문화대상시상

9

인협, 비전 핵심가치 핵심사업 발표

대한인쇄문화협회 비전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호텔PJ에서 열린 인협 정기이사회에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대한인쇄문화협회의 '비전·핵심가치·핵심사업'을 보고했다. 다음은 '비전·핵심가치·핵심사업'의 전문이다.

▲ 비전 : 우리의 찬란한 인쇄문화를 계승하여, 지식·정보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인쇄문화 창달에 선봉이 된다.

▲ 핵심가치 : 창 의 : 미래지향적 사고와 행동, 봉사 : 실질적 가치의 서비스 제공, 긍 지 : 인쇄문화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 도약 :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핵심사업 : 글로벌 홍보(영문 홈페이지, 온라인 프린팅뉴스, 미디어 홍보강화(직지 및 인쇄문화)),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계획 수립, 법률 보완 및 제도적 지원활동, 인쇄문화진흥재단 및 발전기구 설립 추진(범업계적인 구성 및 활동강화), 세계인쇄문화박물관 설립 추진, 인쇄브랜드 가치 제고, 인쇄문화산업단지 및 물류센터,



10

직지 및 인쇄문화 20여 곳서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올 한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국제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국내외 20여 곳에서 직지순회전시회를 개최했다.

직지순회전시회에서는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흥덕사 금속활자가 과학발달사에 준 역할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현지 상주하며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판 인쇄체험을 실시하는 한편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자들에게 직지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순회전이 개최된 곳은 ▲직지 특별전시(인제대학교 백인제) ▲대한민국축제박람회(인천 송도 컨벤시아) ▲파주어린이 책잔치(파주출판도시) ▲2009 서울국제도서전(코엑스 태평양관) ▲직지 및 고인쇄 특별전시(제주대학교 박물관) ▲Book Expo America 2009(미국 뉴욕) ▲직지 및 고인쇄 특별전시(합천 해인사) ▲호반여름축제(청남대) ▲국제특수인쇄산업전(코엑스 대서양관) ▲직지 및 고인쇄 특별전시(의정부 과학도서관) ▲서울인쇄축제(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코엑스 인도양홀) ▲가을독서문화축제(국립중앙박물관) ▲프랑크푸르트도서전(독일 프랑크푸르트) ▲파주북시티가을책잔치(파주출판도시) ▲전국도서관대회(창원 컨벤션센터) 등이다.